

# 雪門

불가 2557년

가을호

통권 제 126호

雪門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5(여름)호를 읽고 -

- ⓐ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했다는 상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오직 상대방을 위해 보시를 행한 적이 있는지……. 문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보시를 행하고 있지만, 수행자로서 마음속의 회도로 삼아 평생 실천해야 할 ‘보시바라밀’, 무더운 여름 나태해져 가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준 인연에 감사합니다. / 사교과 유정
- ⓑ 因果. 우리는 흔히 말한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듯 지금의 힘듦, 즐거움은 과거의 果라고……. 원두반으로 밭을 경작하며 다시 배워간다. 씨를 뿌리고 쑥이 트고 열매를 맺는 모습, 과정에서 새로이 인과를 되새기며 나를 바라본다. / 사집과 우담
- ⓐ 미국 내 다양한 종교 현장을 보고 “교회를 개조하여 일본 젠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를 깨운다. 세계를 넘어, 종교의 벽을 넘어 올바른 진리의 구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 사집과 원일
- ⓐ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운문지를 보며 한철을 확인합니다. 모두 근념하셨습니다. / 사미니파 호주
- ⓐ 뒤표지 능소화 사진이 참 시원스럽습니다. 잠을 자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경책의 한마디 또한 시원합니다. / 사미니파 현공

#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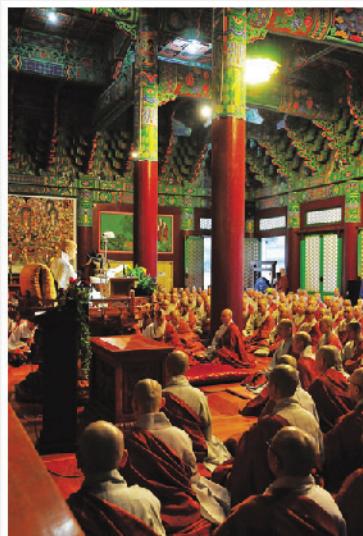
## 목차



- |   |  |
|---|--|
| <p>02 호가산 운문사</p> <p>04 죽림현</p> <p>06 교수논단</p> <p>10 풍경소리</p> <p>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p> <p>14 기획연재</p> <p>17 인도여행기</p> <p>20 동문화 특집</p> <p>22 특별기고</p> <p>27 깨달음으로 가는 길</p> <p>28 담소</p> <p>30 차례법문</p> <p>32 운문, 운문인</p> <p>34 학인논단</p> <p>38 想 특집 하나</p> <p>38 想 특집 둘</p> <p>39 想 특집 셋</p> <p>39 想 특집 넷</p> <p>40 수행의 두레박 하나</p> <p>42 수행의 두레박 둘</p> <p>44 수행의 두레박 셋</p> <p>46 기획탐방</p> <p>49 자유기고</p> <p>50 이 한 권의 책</p> <p>52 운문논평</p> <p>54 운문소식</p> <p>55 등불</p> | <p>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5(여름)호를 읽고<br/>네 종류의 수행자 명성<br/>『禪宗四部錄』에 대하여 ② 지성<br/>향심向心 도이<br/>스승님 전상서 일진<br/>진정한 포교는… 윤성<br/>스승의 나라를 찾아 떠난 39존자들의 여행기 법수<br/>동문스님들의 발자국 편집부<br/>참삶을 위한 마음의 지혜 신재용<br/>가릉빈가의 음성 편집부<br/>불교에 대한 기억의 파노라마 양병민<br/>수륙재水陸齋의 의미 성돈<br/>함께하는 전통매듭 ③ 편집부<br/>한국 경제·사회복지의 21세기 현상 ① 혜명<br/>고통의 소멸 혜택<br/>시법是法 성엽<br/>간경看經 진용<br/>허수아비와 고추잠자리 민재<br/>대중 속에 내가 있음이…… 성민<br/>발에서 일목<br/>여름단상 현공<br/>깨달음에 이르는 길 ‘문수선원’ 감옹<br/>진정한 학인으로서의 한걸음 현경<br/>채근담菜根譚 정원<br/>내 삶의 주인이 되는 습관 편집부<br/>통권 126호, 가을호, “利行…달”</p> |
|---|--|

## 네 종류의 수행자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매년 음력 8월 20일은 운문동문의 날입니다. 올해는 동문의 날에 운문승가대학 졸업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승가대학이 설립된 이래로 가장 많은 대중이 운집했습니다. 강원 시절에는 어리고 웃음 많던 학인들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각 분야에서 뿌리를 내려 우리 사회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스승이지만 흐뭇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동문의 밤 행사에는 40여년 전으로 돌아가 졸업생들과 내가 가르쳤던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 무지개처럼 가슴에 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하듯이나는 동문들에게 매사에 진실하고 부지런한 수행자 되기를 당부하면서 아래의 경전 말씀을 소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입니다.

첫째 ‘도의 승리자’는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둘째 ‘도를 말하는 사람’은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셋째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란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넷째 ‘도를 더럽히는 자’란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수행자들은 ‘네 종류의 수행자는 이와 같다.’고 알아서 통찰하며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슗타니파타 -

출가 수행자라면 말할 것도 없이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와 같은 단순한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출가 수행자에 대한 위의 정의는 우리가 늘 의지할 가르침입니다. ●

## 『禪宗四部錄』에 대하여 ②

자성 / 운문사승가대학 중강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信心銘
3. 證道歌
4. 十牛圖
5. 坐禪儀
6. 나오는 말
7. 참고문헌

### 4. 十牛圖

농경사회는 소와 관계가 깊다. 소는 밭을 갈고 우유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온몸을 던져 일반 세속에서 가정과 식당의 식탁 위에 흔한 먹잇감으로 올라온다. 그야말로 머리에서 빨끝까지 인간을 위

해 희생하는 동물이다. 이에 반해 소를 숭배하는 풍습도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그 역사가 매우 깊은데 특히 인도와 중국의 종교는 소와 관련이 깊다. 석가 모니의 見名인 고타마는 ‘最高의 牛王’ 이란 뜻이며<sup>1)</sup>, 푸른 소를 타고 힘곡관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노자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힘곡관을 지키는 윤희라는 관리가 물으니, 소 등에 올라탄 노자는 그저 묵묵히 계곡 건너편의 피안을 가리킬 뿐이었다.

唐代가 되면서 어느 禪院이든 소를 길렀다. 이는 경작과 관련된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이라는 노동禪과 맥락을 함께 한다. 운문사도 불과 30년 전에는 지금의 은행나무 자리에서 소 울음소리가 음매~하고 운문도량에 울려 퍼졌으며, 대중스님들은 김매고 콩 타작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宋代가 되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도된 牧牛圖의 작품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廬庵의 「十牛圖」인데, 이는 10장의 그림과 개송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은 『벽암록』으로 알려진 圓悟克勤(1063~1135)과 동문인 大隨元淨(1065~1135)의 제자로 생몰연대는 不明이다. 그들은 모두 임제종의 양기파에 속하며, 중국과 한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禪宗의 주류가 된다. 『벽암록』과 「십우도」의 유행은 이러한 法系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의 특색은 牧牛의 10단계를 나누었다는 점에 있다. 그림은 젖 어버린 소를 찾는 점에서 시작하여 소를 발견하고 길들여 차츰 소도 사람도 그 자취가 사라진 뒤 다시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

여기서 필자는 십우도에 관하여 웹서핑을 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만나게 되었다.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인 하마노유리(浜野ユリ)의 그림인데 십우도를 각자에게 그리게 해서 자신의 일생에 대한 만다라화라고나 할까? 인생지침의 상징성을 그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내밀성을 농도 깊게 표현하였기에 소개해 보겠다.

1) gotama 聖仙의 이름, 그 후예, 最大의 牧牛. 음사하면 龍曇, 具譯이 된다. 《梵和大辭典》, 東京, 講談社, 1961, p. 436

### 제1 尋牛 (소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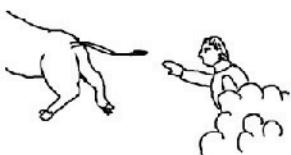
자신의 인생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살아가는 의미, 충실감이 없다. 바꾸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이 단계이다.

### 제2 見跡 (소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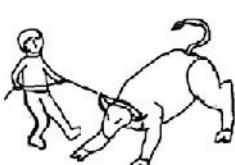
소(살아가는 의욕과 연결되는 靜動, 생명력)를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것은 흥미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그런 장르의 책을 읽는다. 동호인들과 교류를 하고 학습하는 문화활동의 단계이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단서가 있으나 다른 '소'의 발자취도 많이 혼재되어 있다. 매우 다채롭고 즐거우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 가운데 이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다.

### 제3 見牛 (소를 보다)



"나의 '소'는 이것 이야!" 하고 발견하는 단계. 사실 소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차린다.

### 제4 得牛 (소를 얻다)



소(靜動, 에스터럴체)와 젊은이의 갈등단계. 여기서 만일 소와 격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다.

### 제5 牧牛 (소 길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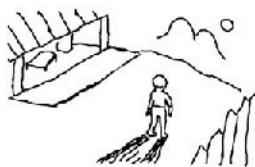
소와 젊은이는 조화롭다. 어느덧 갈등이 없어졌으며, 젊은이는 소가 걷는 방향으로 저항이나 불안감이 없이 따라간다.

### 제6 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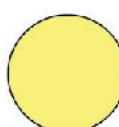
젊은이가 소 등에 타고 피리를 부니 소가 그 피리소리에 이끌려서 집을 향해 간다. 피리소리는 조화의 상징이며, 인생의 마지막 달성을 상징화한 이미지이다. 자신이 목표로 한 길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 '집'으로 가까이 간다.

### 제7 到家忘牛 (소를 잊고 집에 도착한다)



소와 젊은이가 일체화되어 더 이상 대상화되지 않으므로 그림에는 소가 사라졌다. 자신의 사상과 이론이 여기서 완성된다. 완성되었다는 이론도 물론 모순점이 내포되었으며 집에 있는 자신의 세계 외에도 별도의 세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 제8 人牛俱忘 (사람과 소를 모두 잊다)



제7의 그림주제였던 자기의식 = 주체 = 중심이 용해되었을 때, 주체와 객체가 혼연一体가 된다. 세계의 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세계의 주변, 즉 바깥세계와의 경계를 알아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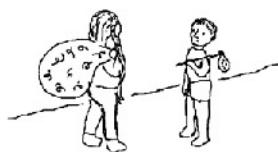
### 제9 返本還源 (근원으로 돌아가다)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좋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다만 ‘자연’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며 이 대답을 탐구하는 것이 제8 그림의 테마이다. 이 단계에서 바깥 우주와 접촉한다. 신체도 知性도 유한이지만 감정만은 무한이므로 감정을 사용해서 바깥우주와 연결되며 그 힘을 얻어 돌아온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며 자신에게 ‘자연’인 것이다.

### 제10 入塵垂手 (저자에 돌아가 자비를 베푼다)



入塵이란 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제8의 그림에서 바깥우주로 가서 자신이 바뀌었고 진정한 자신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제9의 그림

에서는 자기완성이요 제10의 그림은 그러한 자기 완성을 자신에게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종교인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그림의 사이클로 돌아가서 ‘소찾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 5. 坐禪儀

선종에서 항상 坐禪을 행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좌선하는 방법을 기록한 서적의 출현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좌선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뜻을 함께하는 자들과 좌선에 힘쓰는 초심자로서 우선 필요한 것은 선배들의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좌선하는 방법은 선배들의 간단한 지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문장으로 된 문자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

부터 좌선실천을 존중한 天台宗에서는 『마하지관』이나 『천태소지관』이라는 훌륭한 저작물이 있다. 문자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특별히 禪宗에만 좌선이나 坐法이 있는 것도 아니다. 永嘉玄覺의 「證道歌」에서 이미 “行 또한 禪이요, 坐 또한 禪이며, 語默動靜에 體가 安然하다”고 하였다. 선종에서 좌선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한 책이 늦게 생겨난 까닭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치문경훈』 권1에 「장로자각색선사좌선의」가 있다. 종색(1009? ~ 1092?)의 「좌선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좌선하는 마음가짐 2. 좌선의 법칙 3. 좌선하는用心 4. 좌선의 공덕 5. 魔境에 대하여 6. 出定의 주의와 일상의 공부 7. 禪定의 중요성 8. 결론을 맺고 있다.

말하자면 좌선으로써 안락법문을 삼은 사상인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조시대 南嶽慧思(515~577)의 안락행을 계승한 것이다. 혜사의 교리는 천태지의(538~597)에 의해 대성되며, 지의가 혜사에게 처음으로 배운 것은 普賢道場法인데, 이것은 4安樂行이었다. 4안락행은 法華三昧를 말하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안락행을 위하여 좌선과 염불을 했다는 것이다. 北方에서는 담란(476~542)이 世親의 『정토론』에 의해 五念門의 行을 설명하는데, 오념문이란 身·口·意·智業·方便智業의 다섯 가지 행위를 통하여 항상 염불을 행하는 것이며 意業과 智業에 사마타와 위빠사나, 즉 止와 觀을 배대하였다. 종색의 「좌선의」는 네 가지 安樂行儀를 坐禪이라는 一行으로 총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좌선의」 결론부분에 인용한 『법화경』의 문구를 인용한 것을 보면 혜사에 이어 지의와 맥을 함께 했던 것이다.

“竊謂坐禪乃安樂法門，而人多致疾者，蓋不善用心故也。”

- 궁구해 불진대 좌선이 안락의 法門인데 좌선해서 병이 되는 자가 많은 이유는 마음씀이 놓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法華經云，在於閑處，修攝其心，安住不動，如須彌山。”

-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섭수하여 편안히 머물려 움직임이 없음을 수미산과 같이 하라.”

- 법화경 -

좌선의 기본은 변함없다. 우파니샤드의 坐法이 요가수트라나 바가바드기타에 계승되었으며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불교에 도입된 고대인도의 坐法은 중국으로 건너오자 道教와 접합해서 한층 세련미를 더했다. 坐禪이란 말은 아마도 道家의 坐法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하지 않았나 한다.

禪宗에서 좌선하는 방법을 설한 「坐禪儀」가 나타난 것은 宋나라 때부터이다. 宋으로 건너가 일본 조동종의 初祖가 된 도겐(道元)도 「普勸坐禪儀」를 찬술했다.

종색의 「좌선의」는 매우 짧은 단편이지만 좌선을 실천하는 안락의 법으로서 후인에게 귀감으로 삼게 했으니 大悲心을 일으키고 弘誓願을 발하여 自利利他해서 함께 正覺을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바람은 죽은 언어로써 문장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살아 있는 좌선실천을 통해 활발하게 중생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록의 어학적인 면, 역사적, 문헌적인 면을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수행자인 우리가 몸소 뛰어들어 밝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심경과 고인의 說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심경에 도달한 것이 될 것이요, 입장은 바꾸어 나의 심경이 고인의 說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고인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경덕전등록」 제3권 「三祖僧璨大師悟道因緣」
- 「경덕전등록」 제5권 「溫州永嘉玄覺禪師」
- 「경덕전등록」 권30 「永嘉真覺大師悟道歌」
- 鏡島元隆, 『譜注禪苑清規』(昭和47년, 曹洞宗宗務廳)
- 김남희(1996), 「십우도 연구 - 곽암십우도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大森曹玄著(1962), 『禪宗四部錄』, 其中堂。
- 鈴木大拙 (1943), 『禪の思想』, 日本評論社。
- 勝平大喜著(1960), 『信心錦開話』, 其中堂。
- 山田無文, 「坐禪の仕方 - 坐禪儀題唱 -」, 『眞人文庫5』, 昭和31년, 祥福寺眞人會)
- 「속고승전」 권21
- 오선아(2009), 「십우도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희(2009), 「곽암선사의 ‘십우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ttp://cafe.daum.net/younghasanbang>
- <http://www.shomonji.or.jp/zazen/shinjinmei.pdf>
- [http://www.yulisroom.jp/archives/2005/07/post\\_75.html](http://www.yulisroom.jp/archives/2005/07/post_75.html)

## 6. 나오는 말

이상으로 살펴본 선종사부록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표명한다면 종교사상의 실질적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사상의 이론적 측면과 실질적인 실천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선종이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며, 오늘날의 선종에 있어서 공허함은 과거의 실천을 망각하는 데서 초래한다.

출가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면 실천과 이에 따른 이론을 완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古人的 어록에 대한 침듯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그 진정한 뜻이 과연 내가 밝히고자 하는 이 마음작용에 잘 부합되

향심  
向心

도이 / 대교과

산을 휘감아 도는 청정한 바람과 풍경소리  
부처님의 법향으로 가득한 운문 도량을 말없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학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늘 한결같은 스님이 계십니다.

도량을 온갖 꽃과 나무들로 장엄하시고  
자비심으로 자연 그대로를 다 감싸 안으시는  
자애로운 스님이 계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덕이 담긴 법문을 해주시며  
저마다의 가슴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환희심 담는 스님이 계십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시고 만족하시며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시는 스님을  
우리는 더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모든 사물과  
듣고 있는 모든 소리 바로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스님을 떠올리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생에 꼭 부처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운문사를 떠나면  
언제나 말없이 고요한 스님의 뒷모습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오고감 없이 항상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계셔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봅니다.  
진정으로 바른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성 회주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 스승님 전상서

일진 / 윤문사 주자

삼보 전에 귀명하옵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동안 산중 두루 별고 없으신지요?

공양은 잘 드시고 강건하신지 염려되옵니다. 제가 스님 술하를 떠나 직지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45기 행자교육원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침 교육중인 행자님들이 은사스님께 편지 올리는 일과 시간입니다. 신선하고 참신하여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게 되는 초심 수행자들과 생활하면서 아주 새삼스럽게 어느 때보다도 스승님과의 관계, 존재의 의미, 그 은혜로움까지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쭉스럽고 어렵지만 행자님들처럼 저도 초심 행자의 심정으로 스승님께 서신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미니 계율 강의를 해야 하는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새롭게 종단 행자교육의 체계와 발전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스님께서 사미니 윤의를 강의하시고 제가 습의를 했던 1970년 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200여명 되던 여행자님들이 다 함께 생활하기에는 협소했던 그 시절의 교육장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부쩍 감소한 여성출가의 변화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절집에서 스님을 모시고 그것도 교육도량에서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내고 보니 이런저런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숫자적으로 감소된 여성출가의 현상은 질적 향상은 물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번 행자교육 중에 고민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늘 한 도량에서 함께 모시고 있을 땐 무심했던 생각들이 이번 행자교육원에서 문득 이런 맹상을 하게 된 것은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진력해 오신 스승님의 크신 원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석으로 기후도 변화가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옵고 산중 두루 무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 진실하라(卽事而眞)는 가르침 명심하여 회향 잘하고 귀사하겠습니다. 늘 청안하십시오.

2013년 8월 30일 행자교육원에서  
—眞 근배

누구에게 편지 써본 일이 참 오래되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때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는 별써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써내려가는 메일과, 손전화를 통한 메시지, 카카오 톡이라는 나날이 진보되어가는 미디어로 인해 점점 자리를 뺏겨가고 있는 손편지들이 때로는 그리워질 때가 있다.

편지를 보낸 날 손꼽아 보니 임 이미 그 글을 보셨으련만.  
아실까, 전하고픈 온갖 생각들 부친 뒤 새록새록 떠오르는 걸.

중국 당대의 시인 진자룡陳子龍의 “편지”라는 시이다. 가을에는 편지를 쓴다고 했다. 마침 행자님들이 부모님과 은사스님께 편지 쓰는 시간에 쓴 나의 편지는 실제로 스승이신 명성 회주스님께 부쳤다. 행자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나는 한가롭다. 운문사에서 여유없이 살았던 여름방학은 평소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일 것이다. 사미니 계율강의 시간도 많이 축소되어 나흘 만에 끝났고 오후 시간에는 행자님들과 단체로 특강 듣는 재미로 하루가 지나간다. 교수사인 나는 습의사 스님들과 달리 조석예불 외 별로 마음 쓸 일 없으니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푸른 동산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직지사 정원에서 여유만만이다. 물론 속으로는 9월에 치려야 할 특별한 일박이일 간의 동문회 일정에 그리 편치만은 않게 하루하루를 지낸다.

이 푸른 동산(綠園)을 아룩하신 어른스님께서는 평소 그저 그런 한 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 10년을 한 자리에 있었으면 보호받고 그 자리에 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인정하여 끝까지 살게 하신다는 각별한 나무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량 곳곳의 갖가지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 과연 각각의 모습을 한 푸른 나무들은 활기찬 제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며 우뚝 도량을 빛내고 있었다. 어디에 그 질푸른 녹색들이 들어 있기에 이처럼 친란하게 물들이고 있을까? 갑자기 옛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때가 되면 해마다 피는 산벚꽃, 벚나무를 쪼개보라. 거기 벚꽃이 있는가.”

끝없이 물들여진 질푸른 황악산의 산색은 어디서 왔는가? 쪼개도 쪼개도 보이지 않을 녹색의 여름이 내게는 어느덧 가을을 향하고 있다. 삼장원 도서열람실이 아름다운 전시관으로 변하고, 운문세상 사진집 출판, 사진 전시회,『명성스님 수행과 교육사상』책 봉정, 원광화랑연구소 현관식 등 49회까지 모두 모이는 일박이일 간의 거대 동문회……. 나는 별써 가을 속으로, 운문인의 밤으로 달려가고 있다. 길이 빛날 운문의 팔월 보름달을 향하여……. 나무 월광보살 미하살 ♪

## 진정한 포교는…

운성 /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동문 42회)



일본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한 선방 내부

어느덧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것(This, 是)’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 길, 얼마만큼 담았고 얼마만큼 비웠는가? 긴 꿈에서 깨어나니 가슴 한켠이 묵지근해진다.



다양한 종교적 믿음이 수행이라는 귀결점으로 하나 되는 장 교회에서 함께 참선한 후에

2004년 당시 이미 미국 내 불교도가 150만,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폭증하는 종교는 불교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한국교회들의 공격적인 활동 탓에, ‘한국은 기독교국’인 줄 알아왔던 미국인들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비구니스님들의 대거 등장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대대로 불자집안이었던 한국교민들이 이민 후 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땅에 뚝 떨어진 그들에게 공항에서부터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곳이 교회인 반면, 적절한 한국사찰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첫 인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일 만큼, 대형마트나 식당입구 어디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앞 다퉈어 놓여 있던 한국교회들의 홍보물 경쟁. 길에서 만나 같은 피부와 눈동자 색을 가진 스님들과 반갑게 장난을 치던 교민 2세 아이들, 종교 따위야 알 바 없는 그 아이들을 마치 못 볼 것을 본 듯 획 짚아채 가버리며 “사탄”을 운운하는 한국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싸늘한 눈빛. 초등학생 어린 아들이 종교를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불교’라 밝혔다가 기독교인 동급생 아이들에게 끌려가 쥐도새도 모르게 돌팔매질을 당한 후, 우울증과 자살미수로 열룩진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아이. 눈물로 지난날을 회상하던 아이의 어머니는 뜻밖에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한 계기가 ‘불교’였다고 눈빛을 반짝이신다. 2012년 올해로 4회 째를 맞고 있는 〈미 동부 청소년 한국불교문화 체험연수단〉을 통해 발전된 보국



의 현재와 유수한 불교문화의 진수를 직접 체험한 아이는, 미국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씌씩하게 찾아 내더니 결국 아이비리그에 당당히 입학한 후 스스로 불교동아리를 만들어 활발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연수단 체험을 돋기 위해 국내 섭외와 프로그램 기획을 직접 맡으며 맞닥뜨린 한국불교의 현실은 가히 실망스러웠다. 섭외를 시도했던 많은 사찰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교민 아이들의 방문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미국불교 연수 내내 마주할 때마다 봇물 터진 듯 지난 세월의 쓰디쓴 하소연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던 교민불자님들. 알고 보면 한국불교의 최전선에 서서 온갖 어려움을 다 감내하며 불자의 삶을 지켜오신 그분들의 눈물겨운 신행 현실을 경청하는 동안, 지금 ‘한국불교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끔 하는 대목이다.

“대단한 설교나 법문을 바라서라기보다는 그저 힘겨운 이민생활을 다독여주고 내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스님의 한 마디, 따스한 눈빛 하나가 그리워, 왕따를 당할지언정 절을 찾습니다.” 라던 뉴욕 불광선원 청년부 불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찐했다.



태국승단으로 출가수계 후 미국으로 진출한 태국사원의 한 토굴(꾸띠)에서 순수 가사와 신발을 기워 입으며 정진하고 계신 미국인스님.  
복록 빨래날 황금빛 가사를 뺄아 넣고 청정해진 몸과 마음으로 햇살 아래 서서 환히 웃고 계신 스님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를 읽다.  
해외포교의 중심에 무엇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지 마음을 모으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연수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불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국불교는 어떻게 시대 대중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있는가?”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없이 ‘간화선’이라 대답하겠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어찌 대답해야 할까? 그 간화선이 시대 대중들의 고통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어루만져 주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이 질문에 대해 고뇌해 보아야 한다.

한 도반스님이 인도 순례 중 우연히 만났다던 눈 푸른 순례자의 얘기가 있다. “저, 혹시 한국스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숭산 스님의 미국인 제자입니다. 너무나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라던 이 이역만리까지 와서 그나마 서경보 스님, 숭산 스님, 구산 스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어디서 한국이 1700여년 역사에 빛나는 불교국가였음을 내세울 것인가? 저 스님들이 하고 가신 뜻에 비해 국내 불교계, 특히 승가에서는 그다지 대접받지 못하고 계신 현실은 어떠한 왜곡된 불교판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제 아무리 영어가 유창해도 눈 푸른 서양불자들은 이미 어설픈 말장난이나 큰스님 흥내가 통하지 않는 안목을 갖추고 있으니, 해외포교를 꿈꾸는 이라면 먼저 국적과 성별-여성법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초월해 오직 진실한 정진에서 뿐어져 올라오는 ‘법法’으로써 ‘행行’ 할 때에만 지속적인 울림이 있는 미국 불교의 현주소를 잘 숙지하고 나설 일이다. 또한 보시布施 개념이 미약한 미국인들 속에서 모기지(mortgage, 부동산담보대출, 교민들은 이를 ‘모가지’로 회화해 부르고 있었음)에 연명해 한 달 한 달 빼듯이 보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깊은 수행과 함께, 불교심리치유, 환경운동, 전쟁종식을 위한 비폭력 평화운동, 인권보호운동 등 진실한 행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는 대승적이고 온기어린 참

여불교는 미국불교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참다운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승보살다운 실천행은, 이제 불교가 기존의 엘리트층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인 흑인, 여성, 동성애자, 소수종교인들의 기슴 속에까지 새로운 대안의 종교로서 펴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허드슨 강이 드디어 대서양을 만나는 곳, 그러나 세계를 향해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며 서 있던 ‘자유의 여신상’의 그 횃불은 이제 격랑 속에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카! 태생부터 Melting-Pot(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녹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용광로)인 미국인들에게, 아침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접근하는 포교는 더 이상 Sharing(나눔)이 아닌, 자칫 저 술한 전쟁들의 이면에 웅크린 ‘강요된 Propagation(전파, 번식)’의 의미로 둔갑해 버릴 수 있다. 연일 시위대에 휩싸인 월 스트리트 빌딩숲 한구석, 기업인들에겐 화엄적 기업운용을 가르침과 동시에, 시위대에게 조용히 먹거리를 날라주던 불자들의 푸른 바다같이 드넓은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에서, 발 딛고 선 이 세상의 밝음(지혜)과 나아가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조화로운 길(자비)을 찾아 고뇌하는 그 눈동자들 속에는, 분명 관음과 지장의 화신이 섞여 있었다.

‘과거의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적(외적) 풍요를 향한 꿈이었다면, 미래의 그것은 영성적(내적) 성숙을 향한 꿈이 될 것’임을, 바야흐로 불교가 도착한 지 겨우 100년도 채 안 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롭고 실험적인 다양한 종교 간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이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끌어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읽어 내린다. 내가 나고 자란 한국불교라는 토양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구족해 있다. 다만 이 세계 조류의 훈풍을 타고, 각자 지닌 보배의 귀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살려 낼 수 있도록 한 번쯤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진솔한 정리를 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성별, 출 재가, 따르는 선지식 및 문종, 종단, 지역, 한국불교, 그리고 궁극엔 종교 그 자체조차, 그 어떤 이름의 분별들도 초월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끝없이 나누고 나누는 데에만 익어 혼돈스러운 현실을 잠잠히 겪었고, 날로 견고해져만 가는 서로간의 벽을 따스히 녹이며, 저 신라의 원효 스님과 손 불들어 너울너울 화엄무<sup>華嚴無碍</sup>의 춤을 출 만한 ‘이 시대의 화쟁和靜!’ 온갖 좋은 말들로 치장된 선언문식 화쟁을 넘어, ‘지금 여기 내 앞의 가장 소중한 당신과 매일매일 행<sup>行</sup>하는 나로부터의 화쟁’ 말이다.

둘 사이의 ‘다름’으로 인해 설레어 잠 못 이루게 된 순간, 아! 대한민국이다. 높을 고高 아름다울 韶麗, 아름다운 강산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땅, Highly Beautiful Korea !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 청안하신지요?”

특별기고 미국연수기 마지막회를 맷으며  
UA893호 인천공항 상공에서 국제불교학교 1기생 9명 합장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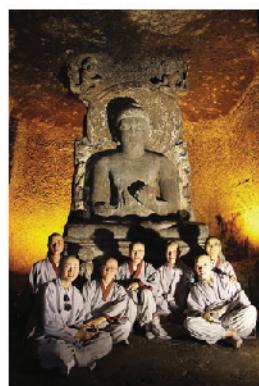
스승의  
나라를  
찾아  
떠난  
39존자들의  
여행기

법수 / 대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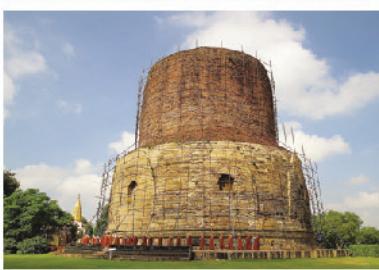
미지의, 신비의 나라며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동경의 땅, 인도!

우리는 저녁비행기로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뭄바이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를 맞이해 주는 새벽녘의 훈훈 습습한 공기와 함께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낯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길 5시간. 멀리서 들어오는 기차를 맞이하며 기차에 탑승했다. 7시간의 기차여행 끝에 엘로라에 도착하여 우리는 바로 석굴사원으로 향했다. 긴 여정 속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우린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3대의 종교석굴로 이루어져 있는 엘로라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석굴들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힘들었던 여성들을 깜마득히 잊고 말았다. 엘로라는 34개의 석굴로 1번부터 12번까지는 불교석굴로 이루어져 있다. 16번 자이나교 최대의 석굴을 돌아본 후 예불당이었던 차이티아 승원인 비하리 등의 불교석굴을 차례로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의 일정을 마감했다.

3일째…… 아침 세계 최대 39개 석굴에 조성된 승원, 법당, 부처님 전생담이 그려진 벽화 등이 있는 아잔타를 방문했다. 아잔타 석굴은 1819년 호랑이 사냥을 하던 영국군 병사 존 스미스 일행에 의해 발견된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장소로 현재는 세계가 인정하는 불교예술의 보고이자 건축, 미술,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5개의 예불당과 24개의 비하라, 즉 승원승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굴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조각상과 벽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조각과 그림으로 장엄을 이루었을까 생각하니 부처님을 향한 그 신심과 열정들이 고스란히 와 닿는 듯했다. 12번 동굴의 가사를 입고 계신 모습의 부처님 상 앞에서 우린 둘러앉아 반야심경과 ‘옴’ 자비명상 10분간의 참선을 했다. 손바닥죽비 삼창이 울렸지만 숙연해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질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산치대탑을 보기 위해 산치로 향했다. 아소카왕이 세운 수많은 탑 가운데 가장 높



아잔타 석상과 그 제자들



- ①
- ②
- ③

- ①산지대탑 앞의 석문  
②사르나트의 다메크 스투파  
③보드가야 앞에서

라운 건축물인 하늘을 상징하는 반구형의 돔 형태로 높이 16.5m 지름 37m인 산지대탑에는 동서남북 4개의 탑문이 세워져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각들이 우아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탄성과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시간 정도의 개인 기도를 마친 후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로 이동한 후 여정을 풀었다.

5일째…… 우리는 리자 체험을 하며 갠지스강의 일몰과 그리고 항하사화장터를 둘러본 후 힌두교 의식인 아르티푸지를 관람했다. 힌두교 최대의 성지로 1년 내내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곳인 바라나시! 인도인들의 소망은 죽음을 성스러운 장인 항하사 강가에서 맞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가 인근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죽은 후 육신을 화장하여 그 재를 강가에 뿌리면 모든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어 강가의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새벽 일출을 맞이한 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5비구를 만나 법을 설하셨던 영불탑과 아소카 석주, 초전법륜지인 녹야원, 여래향실인 물간다쿠티비하르, 그리고 사르나트 박물관을 둘러봤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며 거니셨던 그 길을 우리는 밟으면서 경을 설하셨던 다메크스투파에서 칠정례와 반야심경, 잠깐 동안의 참선으로 예를 올렸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곳, 보드가야에 도착해서는 이슬람의 파괴를 면하기 위해 나란지강의 모래를 끌어다 덮어 피해를 면했다는 마하보디대탑을 참배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가사를 수한 우리는 칠정례와 반야심경으로 예를 올리고 그날 저녁 다시 대탑에 와서 각자 기도를 드렸다. 대탑 주위의 부처님의 금강보좌와 일곱 선정처를 돌아본 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전 수행하셨던 전정각산과 법륜 스님의 20년간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JTS수자타이카데미,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여인의 집터와 아소카탑, 가섭3형제를 제도하신 장소인 우루빌라 가섭사원 등을 참배했다.

7일째…… 우리는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선정의 향실터 영축산에 올라 관세음보살보문품으로 예를 드리고 지바카 망고원과 빔비사라 감옥터, 최초경전 결집장이었던 칠엽굴과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보시한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를 돌아본 후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기르로 향했다. 그곳에는 중관과 유식학이 뿐만 아니라 불교 최초 최대의 나란다 대학이 있다. 나란다란 지식 전도사란 뜻으로 이곳은 용수보살을 비롯한 현정, 의정 그리고 신라의 많은 학승들이 수학했던 곳이다. 이슬람의 침공으로 학승과 수만 명의 장서들이 함께 3개월간 타서 터로서만 존재해 버린 불교학을 융성하게 발전시켰던 나란다 대학. 부처님의 법륜이 이 인도에서 다시 굽혀지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은 기도했다.

9일째…… 부처님의 진신 사리탑과 화엄경 설법지였고 비구니 승단이 처음 설립된 곳이기도 한 대림 정사,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 삽발하고 가사를 처음 입은 장소인 케사리아 불탑과 대장장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지 파바마을을 돌아본 후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로 향했다.

열반당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셔서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절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계신 부처님이 계셨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방일不放逸이다.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수행의 목적인 깨달음을 모두가 성취하길 바라셨던 부처님. 열반당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때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마지막 설법지인 마타쿠아르사원과 다비장이었던 라미브하르 대탑을 참배했다.

12일째…… 금강경 설법지이기도 하며 수다타장자와 기타태자가 함께 부처님께 기증한 기원정사에 들렀다. 비록 터로만 남아 있고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인 나라지만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혼객들이 보여 안심이 되었다. 수다타장자의 집터와 99명의 손가락을 차른 앙굴리마라를 제도한 장소, 천불화현탑 등을 돌아본 후 한국선원인 천축선원에서 짐을 풀었다. 천축선원에서 새벽 예불을 모시고 우리는 카필라 성으로 이동하여 1898년에 발견된 사키아족이 모신 진신사리탑 참배를 하고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 가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과 포카라 명소인 데비폭포와 티벳난민촌, 히말라야산을 경복한 세계적 산악인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산악박물관을 둘러봤다.

14일 새벽…… 사랑코트에 올라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출을 감상하려했지만 구름에 가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내려오는 길 구름 사이사이로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 순례의 마지막 날 문수보살이 시현하셔서 호수에 물을 펴내고 한 그루의 나무로 짐을 지었다는 스암부나트사원과 고대 카트만두왕궁을 둘러본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고도 짧은 여행은 막을 내리고 회주스님 손짓하시는 운문사로 귀가했다. 강원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지만 지금도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성지의 유적들과 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전법의 향기, 추억들은 영원히 50회 졸업생들의 마음속에 현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운문사 어른스님들과 온사스님, 대중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린다. ●



- ① 아쇼카왕석주 앞에서
- ② 바이살리 불사리탑 터를 둘러싸고
- ③ 최초의 비구니 승단의 발생지
- ④ 쿠시나가라 열반당



동문스님들의 발자국








- ◆ 29회 희유, 도선, 혜민, 일원 스님 – 스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 29회 혜민 스님 – 문론회에 와서 행복했고 준비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운문사 졸업생이어서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 ◆ 30회 성환 스님 – 스님의 향기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 ◆ 30회 명국 스님 – 항상 감사드립니다.
- ◆ 30회 일동 –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 32회 증용 스님 –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 33회 자수 스님 – 회주스님 건강하세요!
- ◆ 36회 경훈, 법진, 서본, 정주, 지경, 석준, 자상, 현도, 수진, 지수, 지눌, 현우, 도무, 우덕, 진락, 대우, 혜록, 탄성, 보우, 원일, 탄호, 선빈, 자행, 무관, 혜일, 우석, 도욱, 형석 스님 – 회주스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 37회 일동 – 회주스님의 또렷한 큰 가르침 항상 감사드리고 만수 무강하옵소서.
- ◆ 38회 성민, 경문 스님 – 회주스님 건강하십시오.
- ◆ 40회 도운 스님 – 회주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 ◆ 40회 일동 – 만수 무강하십시오^^
- ◆ 41회 효종 스님 –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 ◆ 43회 정안 스님 – 졸업했지만 이렇게 와서 선배스님들과 후배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역시나 운문사 도량이 최고입니다.
- ◆ 43회 선담 스님 – 오랜만에 도반스님들도 만나고 또 후원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니 강원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항상 후배스님들은 건강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운문사에 감사드립니다.
- ◆ 44회 도진 스님 – 운문유치원의 원생들에게 이런 뜻깊은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신 어른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했고 아직도 감동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
- ◆ 47회 일동 – 강건하십시오.
- ◆ 48회 범서 스님 – 마냥 있을 곳으로만 알았던 강원 4년이 이렇게 금방 길 줄 몰랐습니다. 다시 와서 하루를 머무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초청해주신 어른스님들과 후배스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48회 졸업생 일동 – 존경하는 주지스님, 늘 여여하신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 정진하고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 스승으로 인연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49회 법진 스님 – 50회 졸업생 스님들 축하합니다. 아직은 졸업하지 않았지만 지금 운문사를 느낄 수 있을 때 충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문사 화이팅!!!
- ◆ 성운 처사님 – 스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



## 참삶을 위한 마음의 지혜

신재용 / 한의사

새벽에 동터오는 빛을 보면 깜깜한 어둠을 뚫고 서서히 밝아오는 빛, 그 희망과 환희의 상서롭고도 복된 서광에 삼라만상이 기지개 켠다. 새벽 동틀 때 울리는 웅송깊은 종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온갖 선한 것만을 깨우는 듯하다. 온갖 선한 것만을 보듬는 서종曙鐘에 날짐승은 지저귀고 길짐승은 눈을 비비고 초목은 맷한 이슬로 몸단장을 한다. 우주가 열리는 이 순간, 우리는 참삶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볼 때이다.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 참삶을 위한 마음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 천지와 상응해 사는 것이 득도의 길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 자식 아닌 것이 없다(一切無有如佛子)고 하지만, 『동의보감』의 첫머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도 가장 영귀한 존재(天地之內以人爲貴)”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따라서 참삶은 가장 영귀한 존재로, 그 존재에 걸맞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와 상응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가 일정한 규율에 따라 질서를 갖는 것과 똑같이 규율에 따라 질서를 갖는 존재인, 소천지小天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와 상응하여 살아야 한다. 참삶은 천지의 생장수장生長收藏의 규율에 따르는 것이다. 사람의 일년도 그렇고, 사람의 한평생도 이 규율로 운행된다. 이런 까닭에 『동의보감』은 “음양 사계절의 변화는 만물의 끝과 시작이며 생과 죽음의 근본이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르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절의 규율에 따라 사는 것을 일려 ‘득도’라 한다.”고 했다. 천지의 규율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득도’ 한 것이라는 말이다.



### \* 사계절 규율에 따르고 사섭四攝을 행하라.

“겨울은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살의 뜻과 같고, 봄은 여려 행복하고 아름다운 속삭임으로 만물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보살의 입과 같습니다. 또한, 여름



온 여러 농작물들이 키울 수 있도록 비료를 주고 손질해 주기에 보살의 몸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운문사의 한 스님이 생각난다. 이 말은 아마도 사설四攝의 법에 따라, 보시布施와 애어愛語와 이행利行과 동사同事를 행하며 사는 것이 계절의 규율에 따라 사는 것이요, 바로 참삶의 길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생각된다.

『동의보감』에는 계절에 따른 일상의 계율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봄에는 새로운 ‘기’가 충만하게 해야 한다. 여름에는 ‘기’가 끊임없이 교류하게 해야 한다. 꽃 피고 성장하듯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한다. 가을에는 정신을 안정시켜 외부요인에 의해 의지가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겨울에는 정신을 안으로 지켜서 마치 귀중한 것을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그 사마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탕스 블루의 ‘사마’이라는 시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외로우며 백팔번뇌로 괴로운 것이 삶이다. 산다는 것은 고해苦海요, 예토穢土다. 하지만 『열자列子』에 나오듯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 살아도 잘 살아야 한다.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이 근자에 회자되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라고 떠들지만 가장 영귀한 존재답게 ‘잘 삶, 참삶’이 웰빙이다. 그래서 살아도 복되게 살아야 한다. 복의 씨를 스스로 복전福田에 뿌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복의 씨를 뿌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복되게 사는 것이요, 웰빙이요, 참삶이다.

#### \* 사람 마음, 하늘 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한다.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르 널니리”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짐승도 아니올시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돌아난 문둥이올시다.”라는 시를 쓴 한하운의 ‘보리피리’라는 시다. 그가 가는 곳이 어딘가? ‘인환의 거리’다. 사람이 얹혀 사는 거리. 사람도 아니라면서 그는 사람의 거리로 왜 가고 있는가? ‘인간사 그리워’가고 있다. 인간사가 번뇌에 가득 차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 또한 그들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그리운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전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환의 거리에서 인간사 그리워하며 부대끼며 어울리며, 아우르며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복전福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환의 거리’가 복전이다. 복의 씨를 뿌릴 밭이 바로 ‘인환의 거리’인 것이다.

『동의보감』에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건 절로는 못한다

네.”라는 말이 있다. 즉 사람 마음, 하늘 마음 한뜻으로 합치되어 사는 것이 가장 영귀한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다.

#### \* 천수를 다하도록 살아야 한다.

『서경書經』에는 오복五福 중 하나가 천수를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의보감』에는 “사람의 수명은 천명에 따르는 것(人之壽夭 各有天命存焉)”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를 다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必須盡人事 以副天意).”라고도 했다. 인사人事란, 사람으로서 하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다. 할 바를 다 할 때는 천수를 다할 수 있으나 할 바를 다 못하면 단명할 수밖에 없다. 제 할 바를 다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구나 사람의 수명은 천명에 따르는 것이면서도 부모의 정혈精血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인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 \*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환幻이다.



장밋빛 손가락으로 어둠을 헤치고 새벽을 여는 에오스라는 여신이 어느 날 미동자 티토노스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에오스는 이 남자를 영원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우스 대신에게 간청하고, 가륵히 여긴 제우스가 청을 들어준다. 티토노스는 불사의 몸이 된다. 하지만 나날이 늙어간다. 허물만 남도록 늙어간다. 그러나 불사의 몸이기에 죽지 못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늙으니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병드니 친한 이도 멀어지네. 평시의 은혜와 의리가 이에 이르니 모두가 허망하여라.” 서산대사의 『청허당집』에 나오는 시다. 생로병사는 허망한 것이다. 삶과 죽음 자체가 꿈이요, 환상이요, 거품이다. 『동의보감』에도 “세간만사가 모두 공허하고, 종일토록 이룩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망상이요, 나의 몸 역시 헛된 환영이요, 화와 복 모두가 ‘무·유無有’에 돌아가고, 생사가 모두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자고 깨는 것은 작은 꿈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큰 꿈이라 했고 오래 산다는 것은 긴 꿈이요, 짧게 산다는 것은 짧은 꿈일 뿐이라 했다. 꿈속에서도 아주 긴 세월 꿈꾸기도 하고 아주 짧은 꿈을 꾸기도 하지만, 깨고 나면 그 긴 세월과 짧은 순간이 한낱 환각일 뿐임을 알게 되듯 인생 또한 꿈을 깨고 나면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동의보감』에는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스스로 청청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터끌인들 붙겠는가(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라고 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영귀한 존재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세속에서는 웰다잉well-dying이라고 한다.

#### \* 무사함,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채근담菜根譚』에 “행복이란 무사함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재앙이란 마음 많이 쓴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福莫福於少事 禍莫禍於多心).”라는 말이 있다. 무사함, 넘치지 않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욕심을 적게 하면 일평생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행복과 건강과 장수의 첫걸음은 소욕少慾이라는 뜻이다. 또 “눈은 마음의 거울이요, 귀는 몸의 지지문이다. 보는 것이 많으면 거울이 어둡고, 듣는 것이 많으면 지지문이 닫히는 것이다. 얼굴은 정신이 거니는 둘이요, 머리털은 뇌의 꽃이다.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안색이 마르고, 뇌수가 감소되면 머리카락이 회어진다.” 고하면서 걱정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사려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정서 변화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과로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 \* 근원을 버리고 끝을 쓰지 마라.



『설원說苑』에 “복은 화의 문(福者禍之門)”이라는 말이 있다. 복된 중에 화를 미연에 예방하라는 뜻이다. 복 중에는 복에 겨워 탐진치貪瞋痴의 독구덩이에 빠지기 쉽다. 여우는 강을 건널 때 꼬리를 치켜들고 건너는데, 강물에 꼬리가 젖으면 가던 길을 돌아 나온다고 한다. 『주역周易』 “유기미 무구濡其尾 无咎”가 그 말이니, 소탐하지 말고 화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하라(治於未病之先).”고 했다. 이를 치미병治未病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은 “무릇 병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이를 치료하고 어지럽혀진 뒤에 안정시키려 한다면 이는 바로 목마른 뒤에야 샘물을 파고, 전쟁이 난 뒤에야 비로소 무기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 어찌 늦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병들기 전에 다스리는 방법을 『동의보감』은 치심治心이라고 하고, 수양修養이라고 했다. ‘병들기 전에’ 다스리되 우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은 근원을 버리고 끝을 쓰는 것이며(惟知療人之疾而不知療人之心 是猶捨本逐末) 근원을 구하지 않고 흐름을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기 짜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 \* 복도 화도 자초하는 것이다.

『좌전左傳』에 “화나 복에는 문이 없다.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를 뿐이다(禍福無門 唯人所召).”라는 말이 있다. 화나 복이 그런 것처럼 슬픔이나 분노도 모두 자초하는 것이다. 슬픔도 스스로 슬픔에 빠져들수록 더 슬퍼지고 분노도 스스로 부채질할수록 분노의 불길은 더 거세진다.



이런 실험이 있다. 사람의 숨을 컵에 담아 앙금만 남기는 실험이다. 외롭고 서럽고 슬플 때의 숨을 모아 앙금을 받으면 화색이지만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숨을 모아 앙금을 받으면 복숭아 빛깔로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이 예쁜 빛깔의 앙금을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 죽는다고 한다. 1시간만 팔짝팔짝 뛸 정도로 화를 내게 하고 모은 숨의 앙금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80명을 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분노는 독버섯 같아 그 독소는 이처럼 살인격이다.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라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급하면 맥이 급하고, 성질이 느긋하면 맥 또한 완만한데, 대체 맥이 완만하고 느리면 장수하고 맥이 급하고 빠르면 요절한다.”고 했다. 또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천지가 호흡하는 것으로서 하루 2번씩 오르내릴 뿐이지만 사람은 하루에 1만 3천 5백 번 숨을 쉰다. 그래서 천지 수명은 오래고 끝이 없지만, 사람은 아무리 길어도 100살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 \* 순응과 실천이 중요하다.



『순자荀子』에 “화와 복은 이웃지간(禍與福鄰)”이라는 말이다. 화의 곁에 복이 있으니 재앙 중에도 복을 소망할 수 있다. 병의 곁에는 건강이 있으니 병중에도 건강을 염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제자가 입적하려는 큰스님께 여쭤봤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고 알릴까요.” 그러자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잤노라.”고……. 배고픈 데도 천 가지 생각에 시달리고 졸린 데도 만 가지 상념에 혼들리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잘 수 있는 경지, 이것이 바로 순응이다. 가장 순리적인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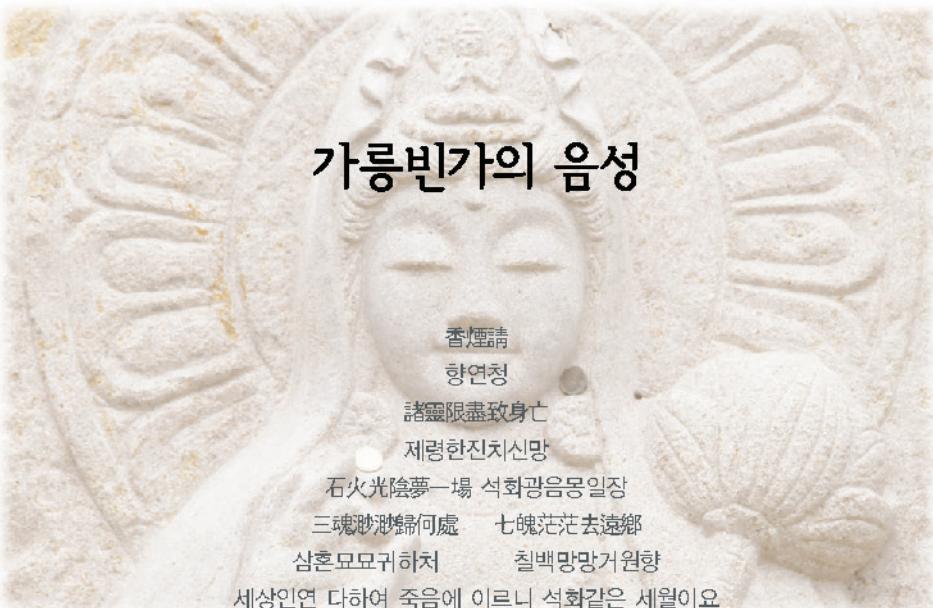
###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인 고은의 ‘그 꽃’이라는 시다. 이런 삶이 순리적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름’보다 ‘덤’을 피하라는 『동의보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순리적인 삶이다. 『노자老子』에 “세상에는 가지가지 화가 있으나 만족을 모르는 화만큼 큰 것이 없다(禍莫大於不知足).”는 말처럼 지족知足의 삶이 순리적인 삶이다.

이제까지 여러 성인들의 말씀과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참삶을 위한 마음의 지혜에 대해 짧은 소견을 밝혀보았다. 여러 말을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한고조寒苦鳥라는 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고조寒苦鳥는 추위에 떠는 새다. 밤새 얼마나 떨었던지 날이 밝으면 따뜻한 데로 날아가겠다고 다짐하는데, 막상 해가 떠서 따뜻해지면 까맣게 잊고 놀다가 또다시 밤이면 추위에 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순리적인 삶도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얼마나 정진 精進하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진’은 참삶을 더해가는 실천의 길이다. ◈



신재용 한의사님은 동양의과대학, 경희대 법대,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경희대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한의사 국가고시에 수석 합격하여 5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온 한의사의 길을 계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동양 의학서 『동의보감』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건강을 돌보고 예방,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 시대의 허준이라 칭송받고 있다. 저서로는 「MBC 라디오 동의보감」, 「‘약’이 되고 궁합맞는 음식동의보감」, 「녹차와 약차」, 「체질 동의보감」, 「신 동의보감」, 「알기 쉬운 한의학」, 「보약과 식생활」 등 메디컬 애세이집과 한방 전문의서들이 다수 있다. 또한 의료봉사단체인 「동의 달」을 창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의료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 가릉빈가의 음성

香煙請

향연청

諸靈限盡致身亡

제령한진자신망

石火光陰夢一場 石화광음몽일장

三魂渺渺歸何處 七魄茫茫去遠鄉

삼혼묘묘귀하처 칠백망망거원향

세상인연 다하여 죽음에 이르니 석화같은 세월이요

한바탕 꿈이로다. 삼훈은 아득아득 어디로 돌아가나

칠백은 멀리 멀리 고향으로 가버리네

靈駕 既受虔請 已降香壇

영가 기수건청 이강향단

放捨諸緣 傅欽斯奠방사제연 부흘사전

영가시여! 이미 저희들의 청을 수락하셔서 향단에 오셨으니

모든 인연들은 떨쳐버리시고 이 음식을 흡향하소서

靈駕 一炷清香 正是靈駕 本來面目 數點明燈 正是靈駕 着眼時節

영가 일주청향 정시영가 본래면목 수점명등 정시영가 착안시절

先獻趙州茶 後進香積饌 於此物物 還着眼塵(良久) 低頭仰面無藏處 雲在青天水在瓶

선헌조주차 후진향적찬 어차물물 환착안마(양구) 저두양면무장처 운재청천수재병

영가시여! 한 줄기 청향, 바로 이것이 영가의 본래

모습이고, 몇 개의 밝은 등불, 바로 이때가 영가께서

깨달으실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조주스님의 ‘차’를

드리고 이어 ‘향적찬’을 올리거니와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애써 찾아도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그리고 병속엔 물이 있질 않습니까?!

今日靈駕 既受香供 已聽法音 合掌專心 參禮金仙

금일영가 기수향공 이청법음 합장전심 참례금선

영가시여! 이미 향공을 받으시고 법음을 들으셨으니

합장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하시여 부처님께 참례하십시오.

\* 향연청香煙請 : 여기에서 나오는 삼훈이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세 가지 미세한 정신 작용으로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을 말합니다. 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영혼인 태광台光, 상령爽靈, 유정幽精을 뜻합니다. 향연청은 이 세 혼을 차례로 불리 향공과 법음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하는 천도재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 불교에 대한 기억의 파노라마

양병민 / 군인

어릴 적 엄마가 소풍 가자던 말에 신이 나서 따라간 곳에는 조그만 절이 있었다. 기대했던 소풍이 아니어서일까? 너무 힘들게 산을 올라가서일까? 아님 그곳에서 먹었던 팔죽이 맛없어서일까? 어릴 적 나는 절에 가는 게 너무 싫었다. 엄마가 가자고 할 때도 가기 싫다며 폐를 쓰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난 불교와 악연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고 불교와의 인연도 거기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전국에 있는 사찰로 여행을 다녔고 그럴 때마다 난 죽도록 하기 싫었던 백팔배를 해야만 했다.

힘들기만 했던 백팔배…….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법문……. 특히 발우공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친구들에게 난 무교라 말하고 다닐 정도로 불교가 싫었고 여행지에 사찰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짜증내고 화를 냈다. 그러나 강한 부정은 강한 공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그렇게 싫어하던 불교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스님의 권유로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운문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계다가 또 사찰에서 3박 4일이나 있어야 한다니……. 차라리 옮고 싶었다. 차를 타고 가는 4시간 동안 하기 싫다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느냐고 칭얼거렸고 운문사에 도착해서도 집에 가고 싶어 투정이란 투정은 다 부렸다.

결국, 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마음을 다잡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찰에 대한 인식에 조금씩 변화가 왔다. 불교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가본 사찰보다 운문사의 환경이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운문사의 공기 좋고 깨끗한 계곡물이 너무 좋았고 그곳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군대 가기 전까지 3번이나 더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가게 되었고 입대 문제로 봉사활동을 못 가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아쉬워했다.

불교와 두 번째 만남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였다. 모든 훈련병들은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간다고 했던가……. 여름불교학교 자원봉사활동의 좋은

기억 때문에 나는 주저 없이 불교를 택했다.

그곳에서 접한 불교는 이제껏 느꼈던 불교와는 전혀 달랐다. 힘들었던 백팔배를 강요당하지 않았고 맛없는 팔죽도 없었다. 대신 초코파이가 있었을 뿐……. 법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고 언제나 나에게 이로운 교훈을 담고 있었다. 특히 그때 법사님이 소개해 주신『붓타니파타』의 한 구절을 수첩에 적어놓고 아직도 외우고 있다.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조금도 겁내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라.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며  
저 꽝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이처럼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불교 활동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었고, 그런 불교 활동을 통해 고된 훈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나에게 불교는 이제 더 이상 짜증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불교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정신,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책임감, 또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건강한 대한의 아들로 성장, 발전시켜 주었다.

현재 나는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군대생활이 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사찰에서의 생활과 스님들의 걱정, 운문사 어린이 불교학교의 봉사활동에서 배운 것, 훈련소 때 법당을 다니며 느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일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특기병에 지원했고 지금은 군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관리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 나는 종교 활동이 있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법사 스님께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다. 전역 후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태까지 불교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디딤돌 삼아 세상을 볼 수 있는 어엿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사찰의 봉사활동도 좋지만 나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할 수 있는 단기 출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불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



양병민 님은 26세로 중국 로하 국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군 복무를 위해 중국 북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휴학 중이며 현재 3군사령부 3보총대 병역심사대에서 근무 중이다.

## 수륙재水陸齋의 의미

성돈 / 사집파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성돈입니다.

요즈음 불교문화콘텐츠로 수륙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재직사찰에서 국행수륙재를 실행하고 있어서 수륙재가 왜 중요한지, 수륙재가 유래된 본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차례법문을 준비했습니다.

수륙재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 초기에 처음 실행되기 시작한 이래로, 조선시대는 유교가 담당하지 못하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수륙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변형되었는데, 본래 의미는 국행천지명양수륙무차평등대재國行天地冥陽水陸無遮平等大齋입니다

저희 사찰의 경우는 나라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국행’이란 단어만 앞에 붙습니다. 국행國行이란 나라의 행사로서 임금이 참석하여 나라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나 우주의 유정, 무정 고흔 애흔들을 위해 부처님의 법찬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天地는 하늘과 땅, 명양冥陽은 밤음과 어두움, 이승과 저승, 즉 산 자와 죽은 자를 뜻합니다. 수륙水陸은 물과 육지에서 사는 중생, 무차無遮는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며, 밥을 한 그릇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한 그릇을 주고, 밥을 두 그릇 죄야 하는 사람에게는 두 그릇, 반 공기를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반 공기를 주는 것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그 수준에 맞게, 평등하게 법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대재大齋는 법의 잔치, 법회를 뜻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잔치를 할 때 한 상에 푸짐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므로,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법의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행천지명양수륙무차평등대재는 어떠한 한 가지 법만이 아니라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이 세상 팔만사천 가지 법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무차평

등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륙재는 본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담긴 법찬이므로, 수륙재에 참석하는 유정, 무정 모든 인간과 생명들을 해탈, 천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천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만을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즉 불법으로 고통과 무명에서 밝은 빛으로 이르게 하고 해탈케 하는 것입니다.

수륙재에 부처님의 팔만사천 가지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는 일례로 ‘관욕’을 들 수 있습니다. 관욕은 먼저 시련의식을 통해 유정, 무정을 일주문 앞에서 모시고 와, 자리를 잡고 청한 후, 관욕을 하게 됩니다. 관욕단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처럼 목욕 형식으로 차려집니다. 그런데 이 관욕단은 좀 특별합니다. 수륙재에 초대된 유주, 무주 영가님들은 세숫대야의 맑은 향탕 수와 법문을 통해 깨끗이 씻고, 잘 뒤아 새 옷인 종이옷(지의)을 입게 됩니다. 마을에서도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듯, 관욕단에도 거울을 둡니다. 이 거울의 이름은 난경 또는 묘경이라 합니다. 계란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난경, 묘한 이치가 들었다 하여 묘경이라 합니다. 이 거울은 나무로 만들어지는 데, 뒷면에는 진언이 쓰여 있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남자는 코끼리 상상, 우뢰뢰로 상상, 여자는 무소뿔 서犀, 달 월月로 서월이라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동안의 모든 번뇌와 집착, 무명들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후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는데, 진언으로 무장하여 무명업식들이 끼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관욕이란 법문을 듣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단장, 무장함으로써 집중하고 불법을 들은즉 바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관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새삼 놀라웠고, 도량을 장엄한 수륙재 장엄물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유정과 무정의 생명들을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여러 도구로 작용함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삼라만상의 모든 이를 위한 환희로운 법식法食의 배풀으로 초대된 수륙대재인 만큼, 이 우주를 아우르는 큰 법회가 더 없으니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나옹화상(1320~1376)의 말씀으로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륙명양대도량진진찰찰진선양水陸冥陽大道場塵塵刹盡宣揚 - 수륙재는 어두운 세상 밝은 세상의 큰도량이며 티끌마다 세계마다 두루 미치는 것입니다.”





## 함께하는 전통매듭 ③

사진의 매듭은 금강 매듭과 생쪽 매듭, 짚신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 봄호에 금강 매듭을 소개했고, 125 여름호에서는 생쪽 매듭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 가을호에서는 짚신 매듭을 소개하겠습니다.



### ● 짚신 매듭

준비물 : 매듭실, 라이터, 가위





1. 매듭실을 원하는 길이만큼 준비합니다.
2. 매듭실의 끝을 불로 살짝 지진 다음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3. 124 봄호에서 배운 금강 매듭을 맺어줍니다.
4. 125 여름호에서 배운 생쪽 매듭을 맺어줍니다.
5.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금강 매듭과 생쪽 매듭을 반복해서 맺어줍니다.
6. 원하는 만큼 지은 다음 마지막은 금강 매듭을 맺어줍니다.
7. 낮은 실에서 원하는 만큼의 실에서 조금 모자라게 여유를 남겨놓은 다음 짚신 매듭을 맺고 싶은 곳에서 조그만 고리를 만듭니다. 크게 만들면 그만큼 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만듭니다. 고리를 만든 선은 위로 놓습니다.
8. 위로 놓인 선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으면 고리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뻗어 있으면 고리의 왼쪽부터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킵니다.
9. 통과시킨 선을 잡아당겨 쌩쌩하게 만든 다음 교차로 고리의 반대편을 감싸며 아래에서 위로 선을 빼줍니다.
10. 한 번씩 교차로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과한 실을 잡아당겨 쌩쌩히 해주어야 나중에 매듭의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11. 매듭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4~5개 정도 교차시킨 것이 예쁩니다.
12. 마지막 매듭을 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부분의 매듭전체를 위로 밀어줍니다.
13. 짚신 모양을 다듬어 주고 마지막 선을 잡아당겨 쌩쌩하게 한 후 선을 자르고 불로 마무리해줍니다.
14. 양쪽을 대칭으로 만들어 주면 짚신 매듭이 완성됩니다.

\* 짚신 매듭은 모양이 짚신의 바닥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듭의 마지막을 장식하거나 끈목을 맺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걸쳐 보여드린 매듭코너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까지 소개해 드린 것들은 매듭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얼마든지 핸드폰 고리와 같은 기본적인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쁜 매듭 많이 만드시길 기대하며 매듭 연재는 여기까지!

윤문, 윤문인은 새 주인을 맞이하여 더욱더 좋은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한국 경제·사회복지의 21세기 현상 ①

혜명 / 사집과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1.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적 위치
2.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과 특징
3.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 III. 결 론

## I. 서 론

사회복지를 논하고자 하면 우선 갈등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갈등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시각과 사회복지의 수준이 너무 낮아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려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와 갈등 상황은 현실적인 대안이나 효과적인 결과의 제시보다는 오히려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에 관한 보다 이론적인 측면과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입장과 태도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 학자들의 논쟁거리로 학문적인 흥미는 유발했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논란의 핵심이 아니며 오히려 실리적인 차원에서 현황과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과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름대로 매우 흥미롭게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모방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들에게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너무 지나쳐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체계 존립 자체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후진국들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판단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이 선진국이 짐짝 놀랄 정도의 새로운 발전 형태를 구축하고 있

으며, 후진국에게는 새로이 추구하여야 할 발전 모델로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복지라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세부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경제가 공동으로 조화롭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변화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적 위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발전 수준에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성장 정책은 후진국에 있어서는 경제발전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성장우선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전환되어 소위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제대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통해 분배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힘을 먼저 키우고 국가재정이 어느 수준에 이르자 분배정책의 전개와 더불어 사회복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경험과 이론에 비하여 현실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한국의 사회복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도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중국의 극적인 부상과 남북통일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어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견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2.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과 특징

#### 1) 국가별 사회복지의 상황 및 특징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특징과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복지에 있어서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의 비교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 경제 전체 총생산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8% (2007년)에 이른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각 국가별 지출 내용의 구성을 보면, 각 나라의 사회복지성향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는 국가 책임에 의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주로 스칸디나비아 및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성향이다.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네덜란드에서 자발적인 민간주도의 성향을 볼 수 있다. 반면, 법정 민간부문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는 3층 보장체제로서 기업연금이 다른 국가와 달리 강력하게 추진,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낮고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스위스와 같이 3층 보장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요소 GDP 대비 %)

구 분	한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사회복지지출(A)	7.88	32.0	35.1	31.2	25.2	17.5	20.7
순사회복지지출(B)	10.00	25.4	29.2	30.2	29.5	27.2	22.8
증감률(%=C-A/x100)	2.61	-6.6	-5.9	-1.0	4.3	9.7	2.1
증감률(%=C-A/x100)	28.6	-20.6	-16.8	-3.2	17.1	55.4	1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도 한국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009년

## 2) 한국의 사회복지의 상황 및 특징

한국의 경우 낮은 사회복지수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하게 재정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판단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낮은 출생률,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상실, 의료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정규직 노동자의 감소, 노동법의 경직성,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제 경쟁시장의 침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빈부의 격차, 절대빈곤의 증가 등이 사회복지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볼 때 사회복지 확대라는 단순한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국민적 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균형과 조화보다 단기적이고 편협한 성격의 정책이 주류를 차지하였고, 정책적 선언과 모순되는 정책 결과를 내놓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 3) 한국 사회복지의 변화추세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196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의 성공적 결과로 후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모델로 부각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문제가 제시되면서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이는 사회복지 확대로 귀결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1981년 제4공화국까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고, 1980년대에 민주화 요구와 함께 제5, 6 공화국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까지도 이명박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재정 증가 추세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 4) 한국과 선진국의 사회복지 재정 증가 추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① 공통점 : 사회복지의 급증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보수와 진보 간에 정치적 논쟁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증가 추세는 예외 없이 나타난다.

② 차이점 : 한국의 사회복지는 선진국과 달리 일정 수준이 지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1980년까지 거의 논쟁 없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동시에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1960년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래 1980년 이후 일정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이 급증했다.

## 5)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한국의 사회복지는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사회복지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중심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유럽국가의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가 1970년대 후 stagflation이 나타난 이후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후진국에게 매우 불안한 미래의 모델이 되었다. 후진국은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문제 및 재정적 문제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장에 의한 사회복지재정 확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해결할 방안이 한국의 사례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실제로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을 보여준 국가 사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는 귀중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 3.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 1) 복지정책 개혁의 필요성

##### (1) 한국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

- 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대처이다.
- ② 선진국의 재정 실패의 시행착오를蹈습하지 않는 수준으로 사회보장체계 정립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 (2) 한국의 국내 상황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고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책적 관심의 집중.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확대의 필요성 및 국민적 관심과 인식변화가 고조되고 있다.

##### (3) 사회 및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현상

사회 양극화로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분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전통가족의 해체 및 가족

간 유대 약화, 생활의 다양화로 인한 소득 및 직업의 다양화와 세분화 등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 (4) 사회복지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집합적 책임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보편주의),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포괄성의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의 소득과 보호(국민 최저선의 원칙)라는 원칙을 견지한다.

#### (5)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 or activation)

복지와 고용의 유기적 결합으로 최근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정이 보여준 사례.

적극적 복지에는 고용·친환경 복지와 사회적 배제의 해소가 있다. 이 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즉, 복지와 고용 문제가 상충적 배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재편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

## 고통의 소멸

혜덕 / 대교파



바우야하...  
그대는 이화 같이 꽂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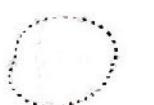
불 때 보기만 하고,



듣을 때 듣기만 하고,



느낄 때는 느끼기만 하고,



일 때는 일기만 하라.

이화 같이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 시법是法

성엽 / 사교파

### ○ 是法



## 간경 看經

진용 / 사집과



## 허수아비와 고추잠자리

민재 / 사미나파



## 대중 속에 내가 있음이……

성민 / 사교파

찌는 듯한 불볕더위로 윗옷이 흥건히 젖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에 접어들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친바람에 쌀쌀함을 느낍니다. 이제 가을인가 싶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 사이로 ‘사각사각’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소리.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내려오는 길에 문득 올려다본 어스름한 새벽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합니다. 길고도 깊었던 여름방학의 끝자락입니다.

이 시간 운문사는? 각자 자기 절로 돌아간 반 스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신없이 치문을 거쳐 원두반 사집을 보내고, 엄마반인 사교반이 되었습니다. 신입생으로 강원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법의 인연으로 만난 우리들…….

점심공양이 끝나면 가사, 장삼을 챙겨 법당으로 찾아가 자비참 기도를 하는 백씨스님 모습에서, 더운 여름 한철 대중스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온몸이 땀에 젖었던 후원 소임자스님들 모습에서, 늘 밝은 얼굴로 열심히 사는 행자님의 모습에서, 나의 행자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사교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 부반장스님의 모습에서,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늘 의젓한 막내스님의 모습에서, 언제나 열정을 다해 확인을 가르치는 강사스님의 모습에서, 나는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각자 맡은 소임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따듯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배스님들의 모습에서, 각양각색의 문양과 색깔의 토시를 팔에 끼고 밀짚모자를 쓰고 올력에 참여하는 대중스님들의 모습에서, 세속에선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새벽 3시! 어김없이 도량석 목탁은 시작되고 일제히 동시에 일어나 가사, 장삼을 입고 부처님께 예경하려 법당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 무리 속에 많이 서툴고 부족한 내가 살아가고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용납되 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과 샷된 집착으로 대중이 뇌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 신 분의 높고 낮음, 학력에 관계없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를 낮추고 상대를 수용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사바세계입니다.

중답게 수행자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노력이 뒤따 라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옮기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피하거나 역행 하는 일 없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부처님 안에서 불법과 대중 속에 잔잔히 스며들며 살고 싶습니다. 참 ‘나’를 찾아 오늘 하루도 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힘차게 시작하려 합니다. 깨닫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고, 불법을 믿고 무엇보다 신심으로 무장한 나 자신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행복에도 크게 감사하며 남은 강원생활 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

## 밭에서

일목 / 사집파

가만히 가만히 들어봅니다.

들려오는 소리…

따라 밭길을 옮깁니다.

길게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밭으로

고추, 고구마, 감자, 상추, 열무, 열갈이, 양배추, 호박, 가지, 오이…

어제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 활짝 그립니다.

우리가 키운 자식인 양 뿌듯한 마음으로

채소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어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무루 익어 다 자라난 것은 없는지

서로 부대끼어 불편함은 없는지…….

밭고랑 사이사이에 자라나는 풀조차도

땅은, 밭은 말없이 자라남을 받아들입니다.

호미로 흙을 파고, 밭로 밟고

비 내려 질퍽하여도, 햇살 뜨거워 땅이 갈라져도

다만 묵묵하게 고요함뿐입니다.

고추밭에 꽃이 피고 초록의 고추가 열리고

하루하루 보내면서 파란 고추가 빠알간 색을 띠며

또 다른 세계를 기다리듯 우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빨간 고추 넓게 펼쳐 좋고  
오고 가며 바라보는 우리네의 마음엔 어느새 행복한 미소가  
그려지며 더욱 가볍고 더욱 짙어지는 색을띠며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는 어여쁨 속에서  
우리네의 신심은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익어갑니다.

우리들의  
욕심내었던 마음도  
성내었던 마음도  
서로 시기 질투하여 괴로운 마음도  
서로 이해 못하는 작은 마음도  
땅에서, 밭에서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라 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어느새 각각의 마음에 자리하여  
행복의 미소로 자라나는 채소와 하나가 되어  
바람과 햇살과 공기와 같은 벗이 되어갑니다.

어느 한 순간만이라도 자연과 같아질 수만 있다면  
어느 한 순간만이라도 마음밭에 잡초를 다 뽑아내어  
평화로운 밭에 흙과 같은 묵묵한 고요함 누려볼까나.

땅은... 밭은...  
특별히 원하는 채소도 없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날씨도 없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인연 따라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심만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밀없이 부르는 그 소리 따라  
우리들의 전부를 내려놓으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



## 여름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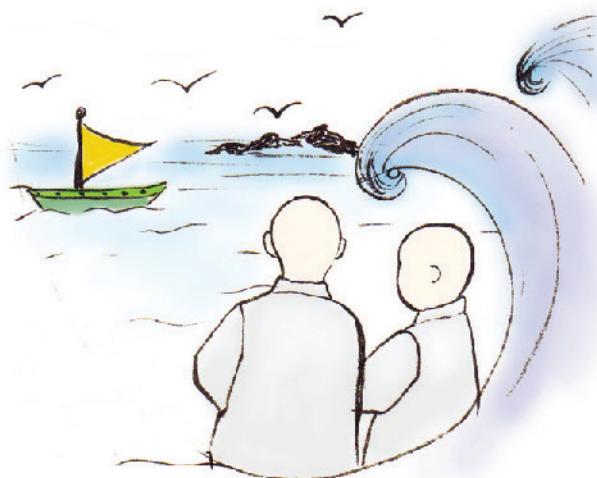
현공 / 사미니파

이번 여름은 그동안 익혀 먹었던 채소나 감자들에게 새삼 미안했습니다. 점통더위를 지내고서야 점통 속에서 힘들게 익어가야 했던 그네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낀다는 것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두들 무사히 더위를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더위' 하면 저는 물이 생각납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무더위(물더위의 극탈락현상), 갈증엔 시원한 물 한잔, 계곡이며 바다며 더위를 피해 다니는 피서까지 모두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의 화려한 바다보다는, 겨울의 청량하고 조촐한 바다를 좋아합니다. 인적이 드문 해변가에 앉아서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어떠한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은 바람이 세게 불어 커다란 파도를 보며 두려워한 적이 있는데, 파도타기에 적당한 굽직한 파도나 집과 건물을 집어삼키는 해일은 얼마나 거대할까를 상상합니다.

파도를 보면 꼭 사람 같습니다. 일어났다 스러지는 것이, 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우리네 같습니다. 제아무리 커다란 파도도, 작고 보잘것없는 파도라도 그 근본 바탕은 같습니다. 모두들 파도일 뿐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 모양새가 조금 다를 뿐 결국은 하나, 바닷물이고 소금물입니다. 근본 바탕은 차이가 없고 모두가 하나이며,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오니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소금 인형〉 – 류시화

노래로도 불려 더 유명해진 시입니다. 삭발염의하신 스님이라면 부처님의 피 속으로 뛰어든 용기 있는 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금인형은 뛰어든 그곳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참 재미있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자연을 생각하면 제가 사는 이곳의 자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문사의 자연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옹졸해지는 마음으로 지내려 해도, 고개 한번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구름 사이로 햇빛기둥이 드리우며, 철혹 같은 밤이면 초승달과 별, 소나무 그림자…….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되나 싶습니다. 집게손가락끼리 마주 대면 그대로 그림엽서구요. 선배스님들께서도 이 달을 보고, 이 길을 걸으셨겠구나! 더구나 개원 50주년을 맞는 이 도량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모두 선배스님들의 손길에서 이루어졌다 고 하니 예와 지금이 함께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 어른스님께서 더위를 피하라고 이목소에서 물놀이를 허락하셨을 때, 새삼 알았습니다. 도시에 살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것도 며칠을 계획해야 겨우 가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에 살고 있구나!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산내 암자라도 타박타박 걸어가 보면 대자연의 품이 얼마나 아득한지 실감합니다.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나를 드러내어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무덤덤하여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편안함에 싸여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웬만큼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혼들어 봤을 때에야 그 속을 알게 되고, 알아야 변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

## 깨달음에 이르는 길 ‘문수선원’

감응 / 사교파



가치 있는 보석은 소중히 여긴다.  
조심스럽다.  
다른 보석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간다.



햇볕이 쟁쟁한 여름. 계절과 상관없이 운문사 학인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바쁘다. 소나무의 그늘 조차 바빠 보인다. 운문사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학인이다. 학인이 없다면 운문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만큼 학인에게 맞춰져 있는 운문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처음 발심한 예비승려가 4년간 대중생활을 익히고 부처님 가르침의 방향을 배우는 운문승가대학,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경전과 율장에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한문불전대학원과 보현율원, 그리고 참선에 마음을, 뜻을 심고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 문수선원.

운문사 안에 선원이 있다? 문수선원은 2003년도에 첫 하안거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운문사의 일부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정신을 가진 학인들은 가까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선원이 늘 호기심 대상이다.

우리는 하안거 결제 중에도 불구하고 문수선원에 방문 요청을 했다. 기꺼이 선원장스님께서는 방문을 수락하셨다. 선원을 가는 길에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다. 이름은 수월교水月橋. ‘물은 흐를 뿐, 달은 하늘에 떠 있을 뿐’ 나만의 해석으로 괜한 신비로움이 감돈다. 소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선원 모습. 소나무 길을 걸어가면서 설렘을 가져본다. 어떤 것도 벼릴 것 같은 평탄한 땅과 신장님이 보호하는 듯이 감싸고 있는 산세 속에 문수



선원은 너무나 아득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문수선원은 현재 혜은 선원장스님께서 1997년부터 운문사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시는 현재 회주스님께서 선원 불사 원력을 세우시고 건립하는 데 도움을 부탁하셨다. 회주스님께서는 승가대학은 부처님 가르침의 바다이고, 선원은 부처님의 마음에 계합하는 숲이기에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려면 지혜는 빠뜨릴 수 없기에 문수선원이라고 이름 지으셨다. 1999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2003년도에 첫 하안거 결제를 시작했다.

잠깐 불사 이야기를 하면, 88년도에 선원장스님께서 사리암 원주소님을 맡아 한창 요사채 불사 중이었는데 우연득병으로 대장암을 발견하셨다. 사리암 원주로서 불사하는 데 책임을 다 못하고 이 생을 끝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 전날 병원 2층 복도에 나반존자님과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모여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생각하길 ‘내 병실은 7층인데 왜 2층에 스님들이 왔을까?’ 하고 아쉬웠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수술실이 2층이었던 것이다. 나반존자님의 가피와 학인스님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준 덕에 수명 연장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97년도에 재발하고, 또 문수선원 불사 중인 2000년에 대장암이 재발하셨다. 선원 불사를 하는데 관리할 스님이 없어진 것이다.

수술을 앞두고 선원장스님께서는 선원을 다 짓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절히 발원했다고 하셨다. 그 발원이 이루어졌는지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운문사에 돌아와 선원 건립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중 속에 살고, 대중을 위한 불사를 해서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후로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선방을 여의지 않고 중노릇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성 들여져 건립된 문수선원이 비구니 선원 가운데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운문사의 자연환경, 학인들을 바라보며 초심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입승스님과 모범적인 선배스님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 많은 선원들을 돌아보고 세심한 불사를 지어서 수좌스님들의 불편함이 적다는 것 등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것이다. 선원장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선방스님들은 수마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한 우리는 선원장스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다. 선원장스님께서는 뜻밖의 답을 해주셨다.

“그게 쉬우면 도를 통하는 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졸릴 때 실컷 졸아야죠~ (하하하) 습관은 길들이기 나름이고 금생의

나를 보면 전생의 나의 모습이라 합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발심자의 원력이 끊끗하다면 수마가 장애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탄탄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마를 평계 삼고 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이처럼 신심 나는 선원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선원에서는 포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요즘 시대에 진정한 포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쭈어 보았다.

“정법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법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습만으로도 포교가 됩니다. 행선축원에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하여 이와 같이 교화행을 한없이 하면’ 이것이 포교입니다.”

역시 짧고 굵게 해결책을 주셨다. 잡다한 생각들이 멀리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바로 선원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인가 싶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의 대수술을 이겨내신 선원장스님께 몸 아파 힘들어하는 학인스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다.

“몸 아픈 것은 살생과 보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살생할 일 없어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번 생에 불종자를 심었으니 더욱 가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몸뚱이를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탐진치 삼독, 지독한 탐진치 풀을 뽑아 다시는 나지 않도록 원을 크게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선원장스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중간 방선시간이었다. 스님들께서 포함하는 모습 조차 고귀해 보였고, 맑고 밝아서 빙산처럼 냉철한 차가운 바람 기운과 고요하고 적막해서 대지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큰방 구경도 시켜주셨다. 설레는 마음으로 선방 문고리를 잡아보며, ‘아! 여기가 바로 선불장이구나’ 싶었다. 진귀한 보석이라도 보고 오는 듯이 희유한 마음이 벅찼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운문사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다. ◉

## 깨달음에 이르는 길 ‘문수선원’



## 진정한 학인으로서의 한결음

현견 / 대교파

如來入涅槃이 近三千載라 命亦隨滅하니 豈有何樂이리오.  
當勤精進호대 如救頭燃하고 但念無常하야 慎勿放逸이로다.

여래께서 열반하신 지 어언 삼천년이라.  
목숨 나날이 줄어드니 무엇이 즐거우리요.  
힘써 정진하기를 머리에 불은 불을 끄듯하며  
무상함만을 생각하여 잠시도 방일하지 말라.



입선계송입니다. 운문사에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합장한 양손에 힘이 들어가고, 계송의 의미가 점점 더 무거워져 감을 느낍니다. 치문반 스님들도 아마도 반년 동안은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따라했겠지만, 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매일 하게 되는 계송에서 오늘 하루 방일하지 않았는지 한 번씩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공부를 하고자 하면 세 가지 좋은 인연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스승이 우선 첫째요, 공부에 서로 탁마상성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 둘이며, 셋째는 정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을 만한 훌륭한 도량이라고 합니다. 강원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돼가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문사 안팎으로 계신 스승들과,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한 도반들과, 화장장엄세계 자체인 이 도량이 우리를 가호하는 최상의 울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도량에서, 여러분이 뜻도 모른 채 따라했던 입선계송이 치문을 거쳐, 서장, 선요, 농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을 이어, 대방광불화엄경에 이를 때까지 불법을 만난 경행심慶幸心과 환희심, 정진불퇴심을 잊지 않길 기원합니다.

치문반 스님들의 첫 번째 논강을 축하하며  
화엄반 일동

\* 논강이란 발기, 중강 스님이 맡은 범위의 경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강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토론의 장을 말합니다. 이 편지는 화엄반 스님들이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을 축하하며 보낸 글입니다.

## 채근담 菜根譚

정월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보조서 1000부  
제작: 한문불전대학원

## 채 근 담

菜根譚  
정월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한국판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왜 살아야 하지?”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왜’의 물음에 답을 얻은 건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답은 없었으니까……. 나의 얇은 사고 안에서 분주히 떠돌아다니는 망상쟁어리라는 걸 알았을 뿐이다. 이 망상이라는 놈은 끝도 없이 분열하여 내 존재를 삼켜버리려 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이 들었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망상이 부풀려놓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극단의 방법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너무나 자유를 갈망했고 – 어떠한 것도 나를 불잡고 있는건 없었다. 솔직히 난 마음만 먹으면 뛰든지 할 수 있는 상당히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으니까 –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질없는 짓거리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에도 위로받지 못했고 자유를 느낄 수 없었다. 이 세상은 갑갑하고 재미없는 곳이라 전방지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출가를 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불법은 복잡하게 영기어 갑갑해질 대로 갑갑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고 무거웠던 대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주었다. 쓰러져가던 존재를 일으켜 세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다. 늘 공허하여 쓸쓸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넣어 충만감을 맛보게도 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을렸으며 사치스러운 망상에 빠져서 짊음을 낭비했는지 깊게 참회하게 해주었다. 난 참으로 복이 많은 놈이다. 아무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주셨다.

또 하나 늘 가까이 두고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채근담』이 그것이다. 나물뿌리말씀……. 정말이지 나물뿌리 맛처럼 담담하고 질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혼한(?) 것대로 삶을 구속하지 말 것, 유연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 것 –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요즘에야 절실이 느낀다 –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안고 살 것, 인생은 본래 한갓 꼭두각시 놀음이니,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이라는 연극무대에 설 것, 더하기가 아닌 덜하기의 인생을 살 것 등등.

물론 부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삶은 어록으로 만나니 그 맛이 더 강하고 신선하다. 좋아하는 글 몇 줄 읽겨본다.

- ……眞味只是淡. ……至人只是常
- ……참다운 맛은 담담할 뿐이다. ……지인은 평범할 뿐이다.
- 放得功名富貴之心下 便可脫凡 放得道德仁義之心下 纔可入聖
- 공명과 부귀의 마음을 놓아버려야만 세속에서 벗어날 것이고, 도덕과 인의의 마음을 놓아버려야만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 風來疎竹 風過而竹不留聲 雁度寒潭 雁去而潭不留影……
- 바람은 성긴 대숲 속으로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는 남아 있지 아니하며, 기러기는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되 기러기가 지나가면 그림자를 남기지 아니한다.……
- ……蓋極高寓於極平 至難出於至易 有意者反遠 無心者自近也
-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평범한 데 깃들어 있고,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나오니, 뜻이 있으면 도리어 멀고, 마음에 없으면 저절로 가깝다.
- 伏久者 飛必高 開先者 謝獨早……
- 오래 엎드려 있는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편 꽂은 홀로 일찍 진다.……
- 金自鑄出 玉從石生 非幻無以求眞……
- 황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보옥은 돌에서 나오니, 가환이 아니면 진리는 구할 수가 없다.……
- 文以拙進 道以拙成 一拙字有無限意味……
- 글은 졸함으로써 나아가고, 도는 졸함으로써 이루어지니, 이 하나의 졸자에 무한한 뜻이 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다. “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을 망라하는 그물은 성글기 그지없지만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분별 시비하는 똑똑함이 대우받는 세상에서 승가 또한 이러한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난拙로 나아가고 싶고 어여한 것도 놓치지 않는 성근그물이길 원한다. 어딘가 어눌하고 부족해보이지만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유연하고 깊은 안목을 갖길 원한다. 수행하는 이로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잠깐 동안에도 난 충분히 솔직한지, 오롯하게 순수한 순간이 있었는지 자문해본다. 글을 읽는 이들을 의식해서 적당히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끄집어내는 순간부터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묻고 또 묻는다. ●

#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습관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른스님들은 어른스님들의 자리에서, 학인들은 학인들의 자리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선배님들의 자리에서 각각 맡은 곳에서 주인이 되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그렇게 굴러가는 모습은 내가 본 승단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다.

경쟁은 서로를 더욱 빌전시킬 수 있는 기회지만 그것이 다만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이란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경쟁이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다만 나의 경제적 명예에 대한 타이틀이나 욕심에 의한 남 죽이기에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뒤틀어 봐야 할 때이다.

다사다난한 가을철을 보낸 운문사!

특히 50회 졸업생을 맞이하여 매년 열리는 동문회를 1박 2일로 이제까지 졸업한 모든 운문인들을 한곳에 모으게 한 이번 행사는 지금 강원을 다니고 있는 학인스님과 졸업한 선배스님들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명성 회주스님의 지승공예전은 소박하면서도 그 속에 깃든 어른스님의 수행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000명분의 음식 준비와 잠자리, 혹여나 불편 하진 않을까 비록 개개인의 친분이 있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친가족을 맞이하듯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그 모든 모습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를 운문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게 했다.

과연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운문사를 졸업한 운문인이라는 타이틀? 물론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하나로 이런 큰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NO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임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느 곳에서든 그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그 모든 곳이 참되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운문사의 행사가 성공한 것은 이 말에 입각한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별한 책임자도 없이 맡은 상황에서 각자의 일만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행사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임제 스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어른스님들은 어른스님들의 자리에서, 학인들은 학

인들의 자리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선배님들의 자리에서 각각 맡은 곳에서 주인이 되어 텁니바퀴가 맞물려 기듯 그렇게 굴러가는 모습은 내가 본 승단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는 이 여덟 글자를 흔히 잊게 된다. 주인이 되기보다는 물어가려 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들을 많이 보여준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욕 듣지 않는 방법이니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승단에서 조차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경쟁은 좋은 것이다. 서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지만 그것이 다만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이란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생할 수 있는 경쟁,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쟁이 어디 있나, 이런 경쟁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가 남을 이기고 밟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음을 뜻한다. 생각해 보자. 내가 하고 있는 경쟁이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다만 나의 경제적 명예에 대한 타이틀이나 욕심에 의한 남 죽이기에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뒤돌아 봄 때이다.

어느 곳에서든 그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경쟁이나 순위에 대한 의미는 사라진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상대방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에 친사를 보낼 때 순위나 경쟁의 개념은 무의미해진다. 이번 운문사의 행사가 그랬다. 신문의 지면이나 그동안의 운문사를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바라 본 사람들은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이곳에 있었고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이 행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다만 그동안의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런 비구니 승단을 위해 애써주신 명성 회주스님에 대한 향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아마도 충분히 느끼고 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운문사에도 더 나아가 비구니 승단에도, 조계종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겁먹고 걱정하기보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역시 말이 많았지만 운문사의 동문회가 보여주었던 앞으로 주요직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조계종,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는 청정승단이라는 거대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 운문소식



▲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식



▲ 추석맞이 송편빛기



▲ 50회 출업맞이 42회 총동문회



▲ 한반도 평화대회 수륙재



▲ 50회 출업생 인도성지순례

- 9월 7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8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입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 회주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11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일본어수업,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 9월 13~15일 화엄반스님들의 출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8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운동이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4~25일 제50회 운문사 출업을 기념하는 '제42회 운문사 총동문회 및 정기총회'가 일천령의 동문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문사에서 있었습니다. 명성 회주스님의 "후박의 향기" 지승공에 작품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 9월 27일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에 주지스님과 산내암자 어른스님, 동문스님, 대학원스님들 그리고 운문사 대중스님들이 버스 5대에 나누어 타고 다녀왔습니다.
- 9월 28일 치문반스님들의 첫 논강이 주지스님과 화엄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4일~18일 진광 학감스님과 제50회 출업예정 화엄반스님들이 14박 15일간 인도 성지순례 출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3일 동화사 승시 법고대회에 사교반, 사집반스님이 참가하여 3위로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17~18일 중구일제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8일 진주불교대학 불자님 200명의 운문사 순례법회에 일진 주지스님의 법문과 고추잎 따기 울력체험이 있었습니다.
- 10월 24일 미국인 교육자 11명의 운문사 템플스테이가 있었습니다. 주지스님과 대학원 기호 스님과 사교반 민우 스님이 지도에 힘써 주셨습니다.
- 10월 25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진호 의료원장님께 병원발전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10월 25일 시청각실에서 "나의 발심과 수행"을 주제로 호주에서 잠시 내한한 지팡스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일 가을철 첫 自恣가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학원 스님들의 라오스, 캄보디아 해외연수와 제50회 인도 성지순례 출업 여행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11월 1일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시대의 수행과 포교" 주제로 법륜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JTS수자타이카데미의 이사장이기도 하신 법륜스님께 발전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11월 8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9일 교육원 주최로 전국 교역자 연찬회에 강사스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 11월 15일 가을철 마지막 자자自恣가 청평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1월 16일 가을철 종강을 합니다. 원광 화랑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웅전, 선열당에서 열립니다.

## 도와주신 분

• 해인정사 일운 스님 • 자성 증강 스님 • 원담 스님 • 이기태 • 신송지  
• 이정숙 • 김영곤 • 정수산화 • 배종옥 • 이지연 • 김도현 • 장지원 • 이창우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나 신청을 원하시는 재기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권 126호, 가을호, “利行…달”

유난히 일찍 마중 나온 쌀쌀한 겨울날씨 탓인지…… 아니면 2년을 살아 온 소임을 놓아서인지 이번 가을철은 많이 쓸쓸해 보입니다. 그런 가을철을 운문사는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50회 맞이 동문회와 한반도 평화대회 그 외 다수의 일들이 운문사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운문지도

풍성하게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학인스님들의 빛나는 글과 솜씨들을 담아봤습니다. 맑은 소임의 마지막 운문지여서 그런지 더욱 애정과 사랑을 주게 된 가을호, 혹여 미흡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아 더욱 알차게 바뀌게 될 운문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 映祚

파릇했던 잎은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내 발 밑을 맴돌고, 포근했던 바람은 어느새 내 뺨을 차갑게 감싼다. 내가 운문사 도량에 온 지도 3년이 됐다. 모든 것은 변하고 항상한 것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젊음도 그렇게 가고 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지금을 감사해야 한다. 너의 허물을 나의 단점을 서로 토닥여주며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해야 한다. - 摯景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b>자 격</b>	1. 2014년 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6기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b>모집인원</b>	사미니과 ○○명
<b>시험과목</b>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b>준 비 물</b>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아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b>모집기간</b>	2014년 1월 6일(음력 12월 6일)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문 접수 가능)
<b>도착일시</b>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b>시험일시</b>	2014년 1월 20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b>교 통 편</b>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회주 명성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홍률  
주지 일진

<b>모집대상</b>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4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b>모집인원</b>	○명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대학원·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b>전형방법</b>	서류심사, 면접
<b>준 비 물</b>	가사, 장삼, 승려증
<b>전형일시</b>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홍률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26호·2013년 11월 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교문·진광 / 편집·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영조 / 편집위원·나경, 홍우, 종윤, 규현, 고경, 태우, 통석, 무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영조(金葉  
의 나들이) / 삽화·능과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